https://doi.org/10.18856/jpn.2018.24.1.009

고령화사회의 문학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엄미옥**

1. 고령화 사회와 치매 서사의 등장
2. 노망에서 치매로—치매의 병리화
3. 치매를 기록하는 서술자와 초점자
4. 망각의 역설과 성찰의 서사
5.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소설의 탄생
6.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치매를 다룬 소설을 대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 치매라는 질병의 서사가 소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축하는지 나아가 고령화시대의 문학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기억의 망각현상은 사회 문화적 돌봄의 대상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치매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면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며느리에 의해 시어머니의 증상이 ‘노망’이나 ‘망령’으로 재현되다가 박범신의 『당신』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바뀌는 것으로 드러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541).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강사.

www.kci.go.kr

치매를 다룬 작품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며느리나 딸 혹은 아내 등 가족이 주된 서술자이자 초점자로 기능하는 고유한 서술방식을 보인다. 치매에 걸린 인물이 기억력의 퇴화와 인지기능의 상실로 인해 서술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매를 관찰하는 초점자나 기록하는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는 내용은 치매에 걸린 인물의 증상과 그에 따른 돌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환자를 돌보면서 변해가는 인물의 내면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환자의 삶의 역사가 구성된다.

한편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물은 돌봄의 과정에서 기억을 상실해가는 환자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고착되는 '기억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의 고착된 세계는 치매 노인을 돌보던 인물을 반성과 성찰에 이르게 하는데, 이는 기억의 병이 지닌 망각의 역설을 보여준다. 한편 김경욱의 〈천국의 문〉은 고령화 현상과 가족의 해체 속에서 돌봄의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개입이 더욱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노년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사회현상을 응축하는 치매소설은 앞으로 가속화될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간병)소설이라는 장르로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노망, 치매, 돌봄, 노인, 고령화, 망각, 성찰, 돌봄(간병)소설)

1. 고령화 사회와 치매 서사의 등장

이 글은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치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 치매라는 질병의 서사가 소설 속에서 어떠한 의미작용을 낳는지 나아가 고령화시대의 문학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우리나라는 2007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9.9%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1] 치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65세 이상 인구 중 10% 내외를 차지하며, 연령이 5세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약 2배가 된다고 한다. 2013년 한국사회의 치매환자는 54만 명에 달하며, 2027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이처럼 치매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면서 노년의 삶을 다양하게 조명해볼 수 있는 핵심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령화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설연구는 노년소설 혹은 노년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수행[3]되어 왔지만 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1) 성미라 외, 「재가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4호, 한국간호과학회, 2013, 299쪽.

2) 이현주・이주원・이준영,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15, 346쪽.

3)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김병익, 천이두 등의 평론가들에 의해 월평과 서평 등에서 한국소설에 있어 문제적 소설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재선에 의해 도시소설의 한 유형으로 문학사에 기술되고, 김윤식에 의해 노인성 문학이란 명칭으로 소설사의 중요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나온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펴낸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한국 노년문학연구 Ⅱ』, 『한국노년문학연구 Ⅲ』, 『한국노년문학연구Ⅳ』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소설, 노년을 말하다』에 수록된 김윤식과 김미현의 평론, 최명숙의 『21세기에 만난 한국 노년소설 연구』, 전흥남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최종렬, 「한국 현대 노년 소설연구사」, 『한국문학논총』 50집, 한국문학회, 2008, 501-502쪽을 참조함. 한편 2000년대 들어 노년소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양상-'긍정적으로 늙어가기의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4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247-278쪽; 장소진, 「내쳐진 노년, 떨칠 수 없는 노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 한국문학비

www.kci.go.kr

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 박완서의 소설 등을 중심으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김은정은「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에서 치매는 "치매 당사자의 감추어진 인격이 치매라는 상황을 통해 드러나듯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감추어져 있던 위선과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며 어머니의 역할로만 어머니를 파악하던 내면 심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어머니를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인생의 아이러닉한 면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장치"[4]라고 말한다. 또「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적 연구」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주인공이 되고 딸이 화자가 되는 모녀서사에서 '치매'는 "어머니의 훼손된 주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반성의 서사가 진행됨으로써 딸은 과거의 어머니의 세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그 복원은 어머니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에 고정시킨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그들 간의 화해는 불완전한 화해로 끝맺고 있음"[5]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는 치매가 소설 속에서 어떠

평과 이론학회, 2007, 329-350쪽; 이미화,「박범신『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우리문학연구』40, 우리문학회, 2013, 549-574쪽; 양보경,「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윤리 양상 연구」,『아시아여성연구』5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14, 139-166쪽; 김미영,「1930년대-196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노인'에 관한 형상화연구－이태준, 염상섭, 황순원 소설을 중심으로,『구보학보』12집, 구보학회, 2015, 171-198쪽; 김미영,「한국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최일남, 박완서, 이청준, 홍상화, 김원일의 작품을 중심으로」,『어문논총』6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15-244쪽; 김소륜,「노년 여성의 몸과 환멸의 서사」,『현대소설연구』59,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257-288쪽; 김윤정,「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기 정체성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한국문학이론과 비평』1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5-25쪽 등이 있다.

4) 김은정,「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한국문학논총』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326쪽.

5) 김은정,「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적 연구」,『한국문학논총』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303-327쪽. 한편 김은정의「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에서는 치매

www.kci.go.kr

한 의미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것으로 치매를 다룬 소설에 처음으로 주목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미영은 “치매를 하나의 중요한 주제나 소재로 선택해서 치매환자 자신의 이야기나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 혹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를 치매서사”라고 정의하면서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와 엘리스 먼로의〈곰이 산을 넘어오다〉를 대상으로 작품 안에 치매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비교・대조한다. 그 결과 “〈환각의 나비〉가 치매를 가족의 정서와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인 가족 중심의 문제를 들추고 있다면, 먼로는 치매라는 질병을 서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치매환자와 그 주변의 사회적인 문제 즉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시선을 확대하고 있다“[6]라고 결론 내린다.

이상의 기존연구는 노년소설의 한 주제 내지 소재로 치매를 다룬 서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상 작품이 한정적이고 치매 서사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참조하면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치매를 다룬 소설[7]을 대상으로 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설에 나타

가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주제를 병리학적 의미, 망각의 의미, 반성의 의미로 나누어 고찰한다.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13-340쪽.

6) 김미영,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233쪽.

7) 그동안 발표된 치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혜경, 『길위의 집』, 민음사, 1995; 김인숙, 「거울에 관한 이야기」,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8; 김원일, 「나는 누구냐-치매에 관한 보고서」, 『슬픈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이승우, 「검은 나무」, 『검은 나무』, 민음사, 2005; 이청해, 「웬아임 식스티포」,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박민규, 「낮잠」, 『제3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08;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창작과비평사, 2008; 정지아, 「봄날 오후 과부 셋」, 『제3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www.kci.go.kr

난 치매의 인식과 양상이 달라지는 측면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치매가 소설의 의미를 구축하는 측면은 물론 치매서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치매라는 질병이 어떻게 담론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서술한다.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인물과 돌보는 인물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치매 노인 돌봄의 행위 자체가 단순한 노동차원을 넘어 관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돌봄 경험의 성격과 내용이 노인과 돌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8] 치매를 다룬 소설 또한 이러한 관계양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약 40여 년의 편차가 있는 작품에서 돌봄의 양상이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피고 이와 더불어 치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억의 상실과 망각이라는 치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서술방식과 서사적 특징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2009; 김우남, 「치매일기」, 『굿바이 굿바이』, 문예출판사, 2010; 전성태,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제34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10; 전성태, 「소풍」, 『두 번째 자화상』, 창작과비평사, 20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치매로 인한 망각과 정체성의 상실, 가족의 해체와 붕괴, 그리고 치매를 통한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등 다양한 문제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작품과 치매에 걸린 노인과 그들을 돌보는 인물간의 관계가 전경화된 작품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을 밝힌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박완서, 「포말의 집」(1976),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해산바가지」(1985),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환각의 나비」(1995),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박완서, 「후남아 밥 먹어라」(2003),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6; 박범신, 『당신』, 문학동네, 2015; 김경욱, 「천국의 문」, 『제4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16.

8) 장혜영・이명선,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국간호과학회지』 47(3), 한국간호과학회, 2017, 368쪽.

www.kci.go.kr

사회에서 치매소설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망에서 치매로－치매의 병리화

치매(dementia)라는 단어는 '박탈' 또는 '상실'을 뜻하는 라틴어 접두사 'de'와 정신을 의미하는 어근 'ment' 그리고 상태를 가리키는 접미사 'ia'의 합성어로 '정신이 부재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스 의사이자 수학자인 피타코라스는 노년기(63세-79세)와 고령기(80세 이상)를 정신과 육체의 쇠퇴기로 규정하면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그 정신이 젖먹이 수준으로 퇴행하여 어리석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인지장애가 뇌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플라톤은 노인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저하되기 마련이며 노령 자체가 치매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세에는 치매를 우울증과 같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신이 부과하는 형벌이라고 간주했다. 치매환자의 행동과 증상은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으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나아가 14세기와 15세기에 만연했던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1797년 프랑스 의사 필립 피넬에 의해 치매라는 진단명이 처음으로 의학용어로 채택되었다. 1894년 오토빈스방거와 알츠하이머는 혈관성 치매의 여러 형태를 발견하였으며 1910년 독일의 에밀 크레펠린이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진단명을 부여했다.[9)]

치매는 인지기능장애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있다. 치

9) 양현덕・양인덕, 『치매(인지증)이야기-역사와 현실』, 브레인와이즈, 2016, 23-27쪽.

www.kci.go.kr

매의 중핵증상으로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기억 장애, 지남력 장애, 계산능력 및 이해력, 판단력 저하가 있다.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면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환각, 섬망, 우울, 초조, 흥분, 수면장애, 배회, 불온 등의 심리증상과 성격변화가 나타나게 된다.[10]

한국에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1990년대를 전후로 노인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인인구가 증가했다하더라도 치매라는 질병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이유는 질병에 대한 관점 때문이다.[11]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인간의 노화와 관련된 기억의 상실 또는 퇴화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노망'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노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자연스런 퇴화의 과정 혹은 인간의 운명으로 여겨졌다.[12] 반면에 치매라는 개념은 비정상성을

10) 고바야시 토시코・후쿠나가 토모코, 『치매노인의 심리증상과 케어』, 황재영 역, 노인연구정보센터, 2011, 25쪽.

11) 이는 질병이 사회문화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변신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회문화적 과정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질병의 사회구성적 관점에서 보면 치매개념의 등장은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구조 해체현상이라는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와 연관된다.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66-74쪽.

12) 다음 박완서의 글은 이를 뒷받침한다. "암이 급사의 공포를 물리친 것처럼 암의 공포를 물리칠 만큼 노인들에게 뿐 아니라 중년이후의 연령층을 공포스럽게 하는 최신의 병은 아마 치매일 것이다. 치매라는 말이 있기 전에도 '노망' 또는 '망령'이라는 말이 있어왔다. 인간이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영아기, 유아기, 사춘기, 청장년기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두고 심신이 쇠약해진 시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징후를 망령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친숙해진 망령이란 말을 놔두고 치매라는 말이 생긴 것은 노쇠현상과는 명백하게 다른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암만해도 치매라는 말과 상관있는 것 같다. '뉘 집 노인네가 망령기가 있으신가봐'하고 전해질 때 '그저 그런가'보다 심상히 들어 넘기게 된다. 그러나 '뉘 집 노인이 치매라더라'하면 '어머머 저를 어쩌나'싶으면서 그 집 며느리나 딸은 물론 집안 식구를 동정하게

www.kci.go.kr

내포하며 치료대상으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부정적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 1990년 전후로 기억의 망각현상과 퇴화현상은 더 이상 일상의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이 아닌 공포를 동반하는 질병현상으로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노망든 노인은 가족에게 귀찮고 돌보기 힘든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병리적 존재는 아니었지만 치매환자는 분명히 병리적 존재로서 가족이 돌보는 영역을 넘어서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된다.

요컨대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기억의 망각현상은 치료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돌봄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순간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치매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면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자연으로서의 대상이 된다. 치매는 이제 하나의 질환이고 따라서 예방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방되지 못했다면 진단(관찰과 감시)되고 치료되어야하고 필요에 의해 격리[13] 되어야 하는 병이 된 것이다.

이러한 치매환자의 이미지는 최근 미디어 산업과 의료산업의 주도로 형성되는 '신노년' 혹은 '성공적인 노화'라는 노년담론 속에서 형성되는 노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노년의 가치를 젊음 연장의 성공여부로 파악하여 늙음을 거부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신노년을 긍정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영원한 젊음의 신화[14]는 기

된다. 그 말은 또한 노인을 모신 가정들이 그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자신들의 노고를 과장하거나 노인을 구박하고 불친절하게 구는 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한다. (…중략…) 그럴 때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의식을 했건 안했건 간에 치매라는 병은 말이 만들어낸 병명이라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완서, 「치매, 그 최신의 병」, 『한국』, 1996.5.14; 천선영, 「노망과 치매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 형성/확산 과정의 사회적 함의」,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1, 524쪽에서 재인용.

13) 천선영, 「노망과 치매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 형성/확산 과정의 사회적 함의」, 『200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1, 527쪽.

14) 한혜경, 「의료와 미디어 산업의 노년담론 비판」, 송명희 외,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 사상, 2012, 162-163쪽.

www.kci.go.kr

억의 상실과 퇴행을 겪고 돌봄의 대상이 된 치매노인을 배제와 격리의 시선으로 더욱더 주변화, 타자화 시키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에는 이러한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양상이 잘 반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또한 치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소설 속에 그려진 치매의 양상을 분석하는 일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담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치매를 기록하는 서술자와 초점자

먼저 치매를 다룬 작품에서는 치매에 걸린 인물이 기억력의 퇴화와 인지기능의 상실로 인한 언어능력의 저하로 인해 스스로의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서술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작품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며느리나 딸 혹은 아내 등 가족이 주된 서술자이자 초점자로 기능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마치 트라우마를 앓는 인물이 그가 겪은 사건을 목격한 증언자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사를 구축하듯이, 치매를 다룬 서사에서도 치매를 겪고 있는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고 심리를 파악하며 그의 삶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초점자이자 서술자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치매를 다룬 서사는 관찰과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관찰과 기록의 서사를 통해 환자를 돌보는 초점자 혹은 서술자의 심리와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박완서의 〈포말의 집〉과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해산바가

www.kci.go.kr

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서술자로 기능하고 〈후남아 밥먹어라〉는 삼인칭 작가적 서술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주 초점자인 딸이 치매에 걸린 친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용이 서술된다. 박범신의 『당신—꽃잎보다 붉던』에서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아내가 돌보는 이야기를 아내의 시점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남편을 돌보던 아내마저 치매에 걸리게 되자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김경욱의 〈천국의 문〉에서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미혼인 딸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치매를 다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은 치매에 걸린 인물의 증상과 그에 따른 돌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환자를 간병하면서 변해가는 인물의 내면이다. 나아가 이러한 서술방식으로 돌봄을 받는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가 재구성된다.

먼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서술된 〈해산바가지〉에서 시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진 뒤 손자 이름을 헷갈려 부르거나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계절이 변해도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며 씻는 일을 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며느리인 '나'가 참을 수 없는 것은 한 밤중에 창호지 구멍으로 아들 내외의 방을 엿보는 일이다. 이에 "어머니가 징그럽고 혐오스러우며 살의를 방불케 한 섬뜩함"을 느끼고 외아들의 홀시어머니의 '망령'이 성적인 연상으로 이어져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 여기서 어머니의 치매를 '망령'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사실 박완서의 다른 작품인 〈포말의 집〉과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노망기', 이상한 노망, '신종노망'으로 표현되면서 치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해산바가지〉는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제도도 없었으며"라는 구절에서처럼 노인을 모실만한 요양원이나 병원이 부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때문

www.kci.go.kr

에 아내는 어머니를 양로원과 정신치료를 겸한 수용기관에 모시기로 하고 남편과 함께 수용시설을 찾아다니다가 망령 난 노인이나 정신병자를 다 함께 마귀 들린 걸로 취급하면서 마귀퇴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놀라기도 한다. 즉 치매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은 당연히 집에서 며느리가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팽배했던 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아이들이나 친척들에게 '무던하고 참을성 있는 효부'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중성'과 '위선'으로 인정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포말의 집〉에서도 드러난다. 남편이 회사일로 미국에 간 까닭에 '나'는 홀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처지이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교복이나 자신의 구두 등 물건을 자주 감추고 양변기 속에 고인 물로 세수를 하는가 하면 밤마다 이방 저방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노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옷갈아 입히는 일을 남의 이목 때문에 한다"라고 고백한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노인네들이 노인학교에 가는 게 새로운 유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노인을 보내지 않으면 고약한 며느리로 소문이 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효부인척 행동하느라 고통은 더욱 심해지며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마치 귀중품을 약탈하는 것처럼 모질게 헌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 며느리인 '나'는 병적으로 음식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합병증인 당뇨병과 고혈압에 해로운 음식을 대접하면서 '증오'와 '적대감'을 표출한다.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들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겪는 고통을 서술하면서 그로 인한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들은

www.kci.go.kr

치매가 의료화되기 전, 노망이라는 개념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퇴행현상으로 여겨졌던 시대를 반영하며,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인간적 도리이고 간병에 대한 책임회피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관념을 보여준다. 또한 돌봄의 주체가 당연히 며느리가 되어야 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드러낸다.[15] 이는 돌봄 자체가 젠더화 되어 있음[16]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박완서의 소설에서 아들은 작품 속에서 부재하거나(〈포말의 집〉,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있어도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간병을 맡기는 (〈해산바가지〉, 〈환각의 나비〉) 형태로 제시된다. 며느리 역시 간병을 마땅히 자신의 일이라고 스스로 내면화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돌봄 과정에서 타나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갈등하고 체념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친척이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다. 이는 돌봄 행위가 환자를 위한 정신적, 육체적 보살핌이라는 측면보다 자신을 위한 행위적 측면이라는 아이러니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시어머니의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마련하는 행위로 신체적으로 시어머니를 타자화시키는 방식으

15) 이봉숙・김춘미・이명선, 「여성가족 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 여성주의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5호, 한국간호과학회, 2004, 881쪽.

16) 돌봄 자체가 젠더화 되는 측면을 우에노 치즈코는 "신체화된 젠더규범"으로 설명한다.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신체화된 젠더규범'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할 때 쌍방은 아들과 어머니 사이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개호하는 성'으로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上野千鶴子, 『上野千鶴子か文学を社会学化する』, 朝日文庫, 2003, 89-90쪽. 정연욱, 「일본'개호(介護)소설'의 구조연구」, 『日本語文學』 제7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6, 258-259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로 억압된 내면이 표출되기도 한다. 다음은 〈해산바가지〉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다.

>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럭무럭 속았다. 옷 한 가지를 벗겨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내는 것처럼 절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노인은 겁에 질려 목쉰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울었다. (…중략…) 골속에 아니 온 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 넣고 있었다. 마치 터뜨릴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별안간 아찔하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240-241쪽)

위에서 며느리는 일하는 아줌마 앞에서 보란 듯이 시어머니의 몸을 거칠게 다루고 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며느리는 남들 앞에서 효부인 척 하는 자신의 위선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더욱 위악적인 태도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실 수용기관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초가지붕에 걸린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손수 해산바가지를 만들어 거기에 미역 빨고 쌀을 씻는 등 정성껏 돌보던 일을 떠올린다. 아들이 아닌 딸을 넷이나 낳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이러한 의식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가 저절로 '인간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며느리는 더 이상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게 된다. 어머니에게 받은 해산구완의 경험은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의 기억이다. 이는 그녀가 돌봄의 고통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나아가 그녀는

www.kci.go.kr

임종 때 '평화롭고 순결하기까지 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 "마치 자신이 그 얼굴을 만든 것처럼"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되기도 한다. 이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초기에 나타났던 미움과 증오, 자아분열의 상태에서 말기에 돌봄의 행위가 완전히 자신 안에서 통합되어 보람을 느끼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간병의 경험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승화되는 변화의 과정이 며느리이자 서술자인 나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박범신의『당신-꽃잎보다 붉던』은 마치 치매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치매의 증상과 치매가 진행되는 전 과정은 물론 간병수칙까지 남편 주호백을 간병하는 아내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아내인 서술자 '나' 역시 파킨슨과 치매에 걸린 70대 후반의 노인이다. 남편을 간병하다가 그녀마저 치매에 걸린 것이다. 이 작품은 이른바 노노개호(老老介護)[17] 의 양상을 그리고 있다. 노노개호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돌보는 경우를 말한다. 고령의 아내가 고령의 남편을 돌보거나 65세 이상의 자식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노노개호 현상은 고령화의와 핵가족화로 인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살지 않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18]『당신』에서도 부

17) 개호(介護)에 대한 일반적인 일본의 사전적인 정의는 "고령자와 병자 등을 돌보고 간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일본 용어가 그대로 들어와 사용되다가 2000년대 후반 노인수발, 노인돌봄, 활동보조서비스의 용어로, 일본의 개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칭하는 등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연욱,「개호소설『恍惚の人』를 통해 본 근대개호의 오류」,『일본어문학』54, 한국일본어문학회, 2012, 308쪽. 본고에서는 개호라는 용어 대신 돌봄(혹은 간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8) 윤설영,「무섭고도 슬픈 노인의 죽음, 노노개호(老老介護)의 끝」,『중앙일보』, 2017.10.1.

www.kci.go.kr

부의 유일한 자식인 딸 인혜가 미국에 살고 있어 노부부만 함께 생활하므로 고령의 아내가 고령의 남편을 홀로 돌봐야 한다.

현재-과거-현재의 시간적 구성으로 플롯화 된 작품에서 이야기 현재는 서술자인 아내가 죽은 남편을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묻고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락방에서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한다. 일기는 주호백이 치매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까지 '망각을 붙들기 위해 애쓴 흔적'이다. 일기를 통해 '나'는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지난시절을 반성한다. 또 자신의 아이도 아닌 딸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 또한 점차 남편을 묻고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점차 기억력을 상실해가게 된다.

남편은 지하철을 오르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치매는 물론 고혈압과 파킨슨 등의 합병증에 시달린다. 서술자이자 아내인 '나'는 그동안 남편이 놀라운 인내로 한사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자신의 원망과 분노를 다잡으며 살아온 탓에 치매에 걸렸다고 자책한다. 주호백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분노와 독기를 보이며 아내를 향해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돌보는데, 그녀가 쓴 간병일지에 이러한 돌봄과정이 잘 드러난다.

> 병세가 깊어지면서 그는 기억의 회로를 따라 편의대로 시간을 들락거렸다. 이를테면 어제를 십 년 전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십 년 전의 일을 오늘 일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현상은 가속적으로 깊어졌다. 수직이나 수평으로 놓여있던 시간의 눈금이 점차 구부러져 크고 작은 원형으로 바뀌는 현상이었다. 처음엔 가까운 기억들이 급격히 소실되었고 다음엔 가깝고 먼 기억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였으며 나중엔 오히려 현재로부터 먼 기억들이 현재의 꽁무니에 늘어붙어

www.kci.go.kr

지금의 시간이 됐다. 그게 자연스러웠다.(72쪽)

치매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학창시절 수재로 이름을 날렸거나 출세가도를 달려왔거나, 꾸준한 신념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나 하는 것은 치매와 아무 상관도 없었다. (…중략…) 치매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오해의 두 번째는 치료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 자수성가하거나 신념체계가 똑 부러지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랬다. 우울감이 초조와 불안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쌓여 수면장애, 무기력증, 배회증 등과 만나고 이윽고 분열과 망상, 발작이 확인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대개 바라만 볼 뿐이었다. "나이를 먹어서"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를 먹어도 주의력과 기억력과 언어구사능력 등이 타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치매는 유한한 존재의 숙명에 수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야말로 문제였다. 치료에 의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건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129-130쪽)

첫 번째 인용문은 남편이 기억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치매가 노망의 개념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료화된 관점을 드러낸다. '나'는 남편의 치매진행을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그를 위해 발마사지와 기체조를 배우고 미술치료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치료와 간병을 한다. 남편이 걸을 수 없게 되자 잠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을 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간병인을 필요한 경우에만 부르는 방식으로 직접 돌본다. 한편 '나'는 간병일지에 자신의 돌봄경험을 토대로 간병수칙을 제시하기도 한다.

치매 간병인이 지켜야할 수칙중 하나는 환자가 느끼고 착각하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간병인에겐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연기력이 꼭 필요했다. 뻔한 것이라 해도 부정을 통해 환자를 교정하려 한다면 병을 덧낼 뿐

www.kci.go.kr

> 이었다. 예컨대 어느 날 그는 다짜고짜 나를 다그쳤다. “여기 있던 내 지갑, 당신이 훔쳐갔지?” 지갑은 그도 볼 수 있는 문갑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얼른 지갑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쥐어주며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하고 말했다. 훔치지 않았다고 부정하거나 지갑이 저기 있다고 가리킨다면 의심만 더 깊어져 뇌를 감싼 나쁜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를 살찌게 할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200쪽)

> 요양소의 의사는 말했다. “사랑으로 간병하면 대개의 치매환자가 양순해져요. 스킨십이 최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행복하다 느끼면 과거에서도 주로 행복한 기억들만을 찾아 데려오는가 봐요. 완치시키긴 어렵지만, 덜 고통스럽게 하는 건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요” 환자를 방치해두면 나쁜 기억들만 남아 점점 더 포악해질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관리하면 행복한 기억만 남아 순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350-351쪽)

『당신』은 남편의 치매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남편을 위해 끝가지 헌신하고자 하는 아내의 서사이다. 더불어 간병일지를 통해 간병의 수칙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첫 번째 인용문처럼 간병하고 돌보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수칙은 환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으로 인정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병했던 아내는 작품 마지막에 자신마저 치매에 결려 이를 지켜보고 서술하는 딸의 여고생 시절로 기억이 고착되고 만다.

이와 같이 치매를 다룬 소설에서는 치매에 걸린 인물이 스스로 서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주로 돌보는 인물이 초점자이자 서술자로 기능하면서, 돌봄 경험을 통해서 파악되는 치매의 증상을 관찰과 기록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 기록에는 돌봄을 수행하면서 겪는 고통은 물론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자신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치매 노인의 삶 또한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www.kci.go.kr

4. 망각의 역설과 성찰의 서사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한다. 즉 기억은 세계를 지각하고 현실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자아의식의 형성 및 보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개인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19] 치매로 인한 기억 상실에 직면한 노년 인물은 정체성의 혼란에 시달린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망각은 실존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억과 망각은 삶의 근본 현상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기억하고 망각할 수 있기에 살아간다. 우리 삶에 기억이 필요한 것처럼 망각 역시 삶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망각해야 비로소 새롭게 기억할 수 있다.[20]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기억과 망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조형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즉 스스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변형시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고 부서진 형식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21]는 것이다. 치매의 기억손실은 몇 해에 걸쳐 진행되면서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잘 아는 사람의 얼굴, 익숙한 장소에 대한 기억마저 상실하게 된다.[22] 이때 기억은

19)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79쪽.

20) 망각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현재와의 연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적 성격'이다. 기억이 과거의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해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처럼 망각은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와의 연관성이다. 과거 지각은 기억을 호출하는 현재 관점에서 변형되고 구성된다. 이진우 외, 『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34-36쪽.

21) 김진국, 『기억의 병-사회문화 현상으로 본 치매』, 시간여행, 2016, 249쪽.

22) 치매환자의 증상의 진행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건망기(초기)에는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기억으로 등록시키는 일이 곤란해지며 건망증의 증상이 심해진다. ②혼란기(중기)에는 판단력과 사고력이 저하되어 행동에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장소, 인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배회행동과 망상의 증세가 나타난다.

www.kci.go.kr

단기기억에서 점차 장기기억으로 상실이 진행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의 기억이 사라져서 과거의 기억과 현실이 때때로 혼동되기도 한다.[23]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 속에는 완전히 망가지거나 상실된 기억의 홍수 속에 잘 보존된 기억의 섬이 존재한다.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끝난 사람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24]

치매를 다룬 소설에서도 노년 인물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의 섬이 발견된다. 먼저 〈환각의 나비〉에서 딸 영주는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아들네 집에서 어머니가 다시 가출하자 어머니를 다시 모셔온다. 그러나 둔촌동으로 모셔온 어머니가 또다시 아들 집으로 가다가 실종되고 만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 나간 지 반년이 되었을 때 옛날 하숙치던 종암동 집을 연상시키는 서울 근교의 천개사 표교원에서 어머니를 발견한다.

>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도란거리면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아니아니 헐렁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칠십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낀 천진덩어리일 수가 있다니.(89쪽)

천개사 표교원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처녀무당 마금이가 비구니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 절집이다. 마금의 어머니 마

---

③종말기(말기)에는 배회나 불결한 행동과 격한 모습은 사라지지만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카토 신지, 『치매와 마주하기』, 박규상 역,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2007, 31-34쪽.

23) 카토 신지, 『치매와 마주하기』, 박규상 역,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2007, 54쪽.

24) 이반 안토니오 이스쿠이에르두, 『망각의 기술』, 김영선 역, 심심, 2017, 189쪽.

www.kci.go.kr

금네는 가끔 남의 일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는 딸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어머니에게 애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마금이는 “어느날 불쑥 들어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할머니를 보며 슬그머니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만큼 친근감을 느낀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아욱 다듬는 법과 씻는 법을 가르쳐주고 손수 밥을 지어 먹인다. 남한테 위함을 받아 본적 없는 마금은 황홀한 꿈을 꾸는 듯하고 오히려 할머니가 떠나갈까 봐 불안해한다.

인용문처럼 영주의 친정어머니는 마금의 절집에서 주인보다 더 자기 집처럼 자유자재로 행동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인다. 이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기억이 하숙을 치면서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켰던 종암동 하숙집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길을 잃고 종암동 집과 비슷한 마금이의 절집에 들어가 자신이 살던 곳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마금이 또한 자식에게 그랬듯이 그녀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기억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습득되고 응고화 된다. 그리고 응고화할 때 감정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기억이 잘 기억되며 모든 기억에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순간은 없다[25]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암동 하숙을 치던 시절은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감정의 상태로 응고화 된 기억으로 보인다. 마금의 집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시절’을 다시 살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를 애타게 찾

25) 이반 안토니오 이스쿠이에르두, 『망각의 기술』, 김영선 역, 심심, 2017, 107쪽. 치매 환자들은 단편적으로 기억이 사라지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기로 돌아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는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로 한창 일할 나이나 자녀를 뒷바라지 하던 시절이 된다. 카토 신지, 『치매와 마주하기』, 박규상 역,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2007, 99쪽.

www.kci.go.kr

아 헤매던 영주는 우연히 마주친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환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그녀가 어머니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한 것은 동생 내외와 어머니의 간병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어머니를 항상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만 여겼던 일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장녀로서의 책임감과 어머니에 대한 연대감이 강했던 그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침범할 수 없는 세계'는 치매로 인한 망각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한편 〈후남아 밥먹어라〉에서도 이러한 망각의 역설적 장면이 드러난다. 서술자인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며 섭섭함을 간직한 채, 집에서 도망치듯 결혼해 미국으로 간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환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시골 이모네로 가 있는 친정어머니를 만나면서 새로운 성찰에 이르게 된다.

>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아아 저 소리, 생전 녹슬 것 같지 않게 새되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악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밥 먹으라는 붙이는지. 하긴 끼니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먹이면 할 도리 다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136쪽)

>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밥 뜸 드는 냄새에는 무쇠 냄새도 섞여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도. 연기가 벽의 균열을 통과하면서 묻혀온 흙냄새도. 그 모든 냄새와 어우러진 밥 뜸 드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아 이 냄새. 이 편안함. 몇 생을 찾아 헤맨 게 바로 이 냄새가 아니었던가 싶은 원초적인 냄새. 이열치열이라더니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이 편안한 냄새. 어머니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리로 왔을까. 나는 또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 냄새가

www.kci.go.kr

> 왜 이렇게 좋은가. 어머니는 셋째딸을 낳을 때 또 딸일까봐 산파 비용 아끼려고 쌀 한 말을 이고 시골 친정집에 가서 몸을 풀었다고 한 적이 있었다. 외가는 가난했고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녀는 철나고 한번도 외갓집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었다. 난 혹시 이런 집 이런 방에서 이 세상 빛을 본 건 아니었을까.(138-139쪽)

첫 번째 인용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의 이름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망각이 심한 어머니가 막내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무쇠솥을 깨끗하게 가시는 것'도 잊지 않고 정성스레 밥을 지어 놓고 부르는 소리다. 여기서도 어머니의 기억은 손수 아이들 밥을 지어 먹이며 한창 키우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동생을 보기 위해 지은 후남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던 '나'는 두 번째 인용문처럼 어머니가 지은 밥 뜸 드는 냄새에서 원초적 편안함을 느낀다. 나아가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우울과 피곤에 시달리면서 '평생 움켜쥐고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린다.

여기서도 청각과 후각적인 감각과 지각에 의해 형성된 어머니의 기억의 섬을 발견할 수 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후남이를 낳던 친정과 비슷한 이모네 시골집은 딸을 낳고 밥을 해 먹이던 곳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그 시절은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후남이는 그 시절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망각으로 인해 오히려 어머니의 정을 느끼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과 화해에 이르게 된다.

박범신의『당신』에서 60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 주호백은 자신의 딸이 아닌 인혜를 사랑으로 키우고 아내인 '나'에게 충직한 시종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후 아내를 향한 분노와 발작은 물론이고 노기가 등등한 눈빛에 살기가 가득 찬 낯선 사람이 된다. 특히 그동안 그가 숨기고 억압했던 기억이 출몰할 때에는 광기를 보이는데, 그것은 '나'가 1967년

www.kci.go.kr

아픈 딸을 주호백에게 맡기고 감옥에서 나온 김가인이 있는 위도로 내려가 두 달을 그와 함께 보낸 일이다. 평생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나'에 대해 주호백은 놀라운 인내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서 '억압했던 수십 년'의 원망과 분노가 표출된다.[26]

> 공평해지는 것이 그 무렵 내가 신봉하는 윤리성이었다. 그가 오래 살아서 나를 더욱더 횡포하여 부려먹기를 나는 간절히 바랐다. 갚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천칭저울의 가로막힌 막대처럼 그와 내가 헌신으로 완전히 수평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살아생전 비슷하게라도 같을 기회가 있다면 나에겐 그것이 최상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젊은 날의 벼랑길 같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보여준 자기헌신의 필연적 그것이었다.(194쪽)

아내는 그가 치매에 걸린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그를 간병하는 일이 그에게 헌신하는 기회라고 여긴다. 그녀가 쓰는 간병일지

26) 인물의 오랜 세월동안 억압했던 무의식이나 트라우마가 치매로 인해 폭로되는 양상을 김원일의 「나는 누구냐-치매에 관한 보고서」와 이승우의 「검은 나무」와 같은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원일의 「나는 누구냐-치매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양로원에서 '귀부인' 이미지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여 화장을 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이고 김소월의 시를 읽거나 푸치니의 음악을 듣는 등 고상한 취미를 가진 노파 한씨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난다. 일인칭 주인공 서술상황으로 서술된 이 작품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에 점원으로 일하던 제과점 주인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해방 후에는 양공주가 되어 기르지 못하는 자식까지 낳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망각하고 부유한 귀부인으로 위장된 정체성으로 살아오던 그녀에게 치매는 자신이 억압했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트라우마가 표출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삼인칭 작가적 서술상황으로 서술된 이승우의 「검은 나무」에서 어머니는 2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운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후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집에 불을 질러 딸이 죽게 된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이 사건은 그동안 어머니가 현실 속에서 살기위해 단단히 유폐시켰던 기억이다. 이 기억은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치매는 은폐했던 어머니의 기억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치매가 소설 속에서 위장된 혹은 은폐시킨 진실을 드러내면서 서사의 의미를 낳는 작품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www.kci.go.kr

에 따르면 주호백은 치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증상에 따라 “제일 먼저 최근의 기억이 소실되고 다음으로 그보다 오래된 기억이, 마지막엔 청년기와 어린 시절의 기억들만 드문드문 남아있게 된다. 그 다음엔 남은 기억이 재편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방식”이었다. 고착화시켜나가는 기억들은 대부분 행복했던 순간으로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내 모습이나 우물가의 반짝이던 햇빛” 등이었다. 그리고 말년의 그는 오직 ‘나’와 인혜를 지키고 살겠다는 사랑의 맹세와 관련된 것만 기억한다. 그가 죽은 뒤 인혜와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은 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준 셈이야. 가인 오빠를 잃고 난 후 오랫동안 나는 일종의 그림자, 일종의 허깨비로 살았어. 한때는 무용에 매진해 또다시 너와 네 아빠를 버리기도 했었다만, 생각하면 그 모든 건 가인 오빠를 잃은 것에 대한 이상한 앙갚음 같은 것에 불과했어. 그로써 너와 네 아빠에겐 죄를 쌓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런데 얘. 허깨비로 살아온 내게, 그것도 일흔이 넘어서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 거야. 경이로운 삶의 실체, 어떤 심지 뭐 그런 거. 삶의 어떤, 이를테면 여실한 뼈 같은 것, 그런 걸 네 아빠인 주호백. 그의 치매 때문에 만났다면 이해할 수 있겠니. 일흔이 넘어서야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여겨. (…중략…) 치매가 아니었다면 그가 평생 감추고 억눌러왔던 자신의 본능을 차례차례 내개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죽기 전 절대로 도달하지 못했을 각성에 도달했다고 나는 느껴. 나 자신도 몰랐던. 원래 내 안에 쟁여져 있던 사랑이 나날이 솟구쳐나오는 그것. 오해하지마. 연민이 아니야. 경이로운 각성이라고 나는 생각해. 비극이면서 축복인.”(248-249쪽)

인용문에서 ‘나’는 주호백의 치매로 인해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주호백의 치매는 오랜 세월 굳어진 부부의 불공평한 관계를 전도시키며 아내를 ‘경이로운 각성’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당신』에서 주호백의 망각은 아내

www.kci.go.kr

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기능하는 것이다.

요컨대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물들은 돌봄의 과정에서 기억을 점점 상실해 가는 치매환자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고착되는 기억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기억의 병에 걸린 인물들도 감정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들의 고착된 세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노인을 돌보던 인물들을 반성과 성찰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결말은 기억의 병이 지닌 망각의 역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소설의 탄생

김경욱의 〈천국의 문〉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작품으로 미혼의 딸의 시선으로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가 서술된다. 이 작품은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과 병, 가족공동체의 해체 등 여러 겹의 문제들을 한데 응축 시켜놓고 있다.

미혼의 딸이자 초점자인 '나'에게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다.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며 가족을 해체시킨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후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벌컥 분노를 터뜨리거나 망치로 거울을 깨는 폭력성을 보이고 딸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도 병원에서 내보내달라며 난동을 부린다. 부모가 이혼할 때 딸은 아버지 곁에 남았다. 동생은 일본남자와 이혼하고 핀란드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헬싱키로 떠났고, 엄마에게는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여자의 일본유학의

www.kci.go.kr

꿈도 북극의 오로라 여행의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 정작 살이 빠진 쪽은 여자였다.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다, 생선을 고르다, 화분에 물을 주다 몽유에서 깬 사람처럼 화들짝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괜찮냐는 말을 듣는 날이 잦아졌다. 혼자 챙겨먹는 저녁은 점점 부실해지더니 급기야 찐 감자 한 알로 굳어졌다. 동쪽으로 쪽창이 난 반지하의 부엌에서 감자를 꾸역꾸역 먹는 저녁이면 한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 속에 들어앉은 듯했다. 아버지만 떼어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리라 기대했는데, 휴대폰을 최신폰으로 바꾸고, 영어회화 학원에도 등록하고 오로라를 보러 떠날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만 없다면. 여자는 감자를 삼키다 가끔 사레가 들렸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아버지를 퇴원시킬까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시 외곽으로, 작은 평수로 산동네로 세간을 옮기고도 요양병원 입원비 때문에 다시 반지하로 내려앉은 여자였다. 더 물러나야 한다면 이제는 땅 속이나 하늘뿐이었다.(27쪽)

인용문은 치매로 인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여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지고 가야할 짐이고 '어둠'이다. 딸이 결혼을 포기한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다. 결혼을 결정해야 할 순간에도 여자는 아버지의 상태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느라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천국의 문〉은 어린이집 교사인 미혼의 딸이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로, 독신개호의 전형적 사례를 그리고 있다. 독신 개호란 미혼 혹은 비혼의 자녀가 부모를 개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만혼화와 비혼화가 진행된 결과 부모는 늙고 자녀는 독신인 경우, 독신인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를 돌보는 개호와 일 양립의 어려움, 일을 그만 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과 복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개호를 공유하고 공감할 이가 없다는 고립감, 결혼 결정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www.kci.go.kr

문제를 안고 있다.[27]

독신 개호자가 더욱 고립을 느끼는 것은 돌봄이 오로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둘만의 세계에 갇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이혼과 동생의 무관심으로 아버지를 홀로 보살펴야 하는 여자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이 고립되어 있다. 때문에 여자는 요양병원 남자 간호사에게 쉽게 이끌리고 그가 "우리 몸에 '천국의 문'이라는 혈이 있어서 그 곳을 자극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점점 호기심을 갖는다. 남자 간호사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즉 "죽음이란 빛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에 여자는 '고통'과 '억울함'과 '죄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상상한다. 하지만 막상 죽은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나서 요양병동의 남자 간호사를 의심하는 순간 오히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아버지의 죽음을 은밀히 바라던 여자의 심리는 장기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보이는 특성이기도 하다. 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그들은 우울과 불안에 빠지기 쉽고 자살과 살인충동[28]에 시달리기도 한다.

여자는 막상 은밀히 기다리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사내가 말한 '천국의 문' 혈자리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내를 발견한 순간 대학시절 수업시간에 낭송했던 실비아 플라스의 시 〈아빠〉를 떠올린다. 가부장제 아래 분열된

27) 야마무라 모토키, 『나홀로 부모를 떠안다』, 이소담 역, 코난북스, 2014, 15-17쪽.
28) 성미라 외, 「재가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3호, 한국간호과학회, 2013, 390쪽.

www.kci.go.kr

여성자아인 〈아빠〉의 시적 화자는 한편으로는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30년 동안 아버지라는 '검은 구두 속의 발'로 '감히 숨도 못 쉬고 재채기도 못하면서' 살아왔다고 증오한다. 아버지는 그녀가 여덟 살 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계속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화자는 이런 아버지가 가하는 자신의 억압상태를 나치에게 유린당하는 '유태인'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유태인에게 나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죽여야 하는 대상이듯이, 자신이 아버지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여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살인적 충동은 죄의식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자기혐오로 이어진다. 시의 마지막 "나는 끝났어"라는 구절은 자신이 그를 죽이면서 동시에 자기도 죽이고 말았다는 절망을 상징한다.[29]

실비아 플라스의 〈아빠〉의 시적 화자처럼 여자도 자신을 옥죄는 아버지라는 유령을 떨쳐내기 위해 그를 향한 살인적 충동 혹은 상징적 죽음을 욕망했다. 때문에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이 반드시 남자 간호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죄의식에 곧 사로잡히게 된다. 작품 마지막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장면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고해[30]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

29) 〈아빠〉의 마지막 행인 "아빠, 아빠 이 개자식아 나는 끝났어"는 마치 아빠를 죽임으로써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스스로의 목숨도 끝났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실비아는 결국 자신의 삶을 마감함으로써 스스로가 애도의 대상이 된다. 이상 실비아 플라스의 〈아빠〉에 대한 해석은 왕철, 「실비아 플라스의 끝나지 않는 애도－〈아빠〉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6권 4호, 영어영문학회, 2010, 99-109쪽을 참조함.

30) 여기서 '고해'란 오랫동안 깊은 곳에서 은밀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애증, 에로스와 타나토스적 욕망의 불편한 공존, 공격본능으로서의 죽음충동과 열반원칙으로서의 죽음충동 사이의 모순 같은 것을 말한다. 유준, 「〈천국의 문〉과 김경욱의 작품세계」, 『제4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 2016, 101쪽.

www.kci.go.kr

이 소설은 고령화 현상과 가족의 해체 속에서 돌봄의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개입이 더욱 필요한 문제임을 역설[31]한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과 혼자 병든 부모를 돌보는 독신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제도를 강화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작품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호의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나왔고(대표적인 작품으로 1972년에 발표된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꿈꾸는 사람(恍惚の人)』(1972)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개호소설' 혹은 '개호문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노인개호와 문학을 처음으로 연결시킨 것은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이다. 그녀는 "생과 사, 사랑과 증오, 부모와 자식 부부, 친족 등의 가족 유대를 둘러싸고 극한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현장에서

31) 박민규의〈낮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부수적으로 드러난다. 아내가 암으로 죽고 지방 신문사에서 퇴직한 노년의 '나'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자식들에게 집을 팔아 나눠주고 고향의 요양원에 들어간다. 그 곳은 노인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일반양로원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간호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곳으로, 중풍과 치매환자가 많고 혹은 건강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이다. '나' 역시 심근경색과 당뇨에다 요실금까지 생겨 기저귀를 차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고등학생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첫사랑 김이선을 우연히 만난다. 그녀는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녀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요양원에 찾아와 어머니를 데려가겠다며 보증금 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왔는데,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비를 다섯 달이나 체납해 변제가 불가능하고 이 경우 정부의 지원금도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친권자가 아니면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그녀의 친권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의 아들에게 돈을 내준다. 여기서 치매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현상과 등급에 따라 정부의 보조를 받는 요양원의 실태 그리고 치매환자 당사자의 사정이 사회부양시스템의 실제와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문학이 탄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인개호문학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32] 요컨대 개호소설이란 치매 혹은 다양한 병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을 간병할 때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노인을 돌보는 당사자의 내적 갈등이 그려지는 작품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박완서의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포말의 집〉, 〈해산바가지〉, 〈환각의 나비〉, 박범신의 『당신』, 김경욱의 〈천국의 문〉 역시 돌봄을 받는 치매노인과 돌보는 며느리, 딸, 아내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와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돌봄(혹은 간병)소설의 탄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현상과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심화되고 확장될 돌봄(간병)소설은 노인의 병과 삶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가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성찰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1970년대부터 최근에 발표된 치매를 다룬 소설을 대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품에 나타난 치매에 대한 양상이 달라지는 측면을 분석하고 작품 속에서 치매의 서사가 어떠한 의미를 낳는지를 살펴

32) 上野千鶴子, 「老人介護文學の誕生」, 『上野千鶴子か文學を社會學する』, 朝日文庫, 2003, 65쪽. 나아가 『개호소설의 풍경-고령사회와 문학』에서는 '개호소설'을 '사고나 병에 의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케어, 간호의 장을 그린 소설과 개호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간관계를 그린 소설'로 규정하고 고령자의 개호문제를 그린 소설을 다루고 있다. 정연욱, 「일본'개호(介護)소설'의 구조연구」, 『日本語文學』 제7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6, 254-257쪽.

www.kci.go.kr

보았다. 이를 통해 고령화시대의 문학에 치매를 다룬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치매를 앓고 있는 인물과 돌보는 인물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망각이라는 치매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서술방식과 그러한 서술이 낳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거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기억의 망각현상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으로서 여겨졌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 치매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면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공포의 질병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며느리에 의해 시어머니의 증상이 '노망'이나 '망령' 으로 재현되다가 박범신의 『당신』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바뀌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포말의 집〉,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해산바가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돌봄의 주체로 기능하고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박범신의 『당신』은 70대 노인인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노노개호의 양상을, 〈천국의 문〉에서는 미혼의 딸이 아버지를 간병하는 독신개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돌봄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치매를 다룬 작품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며느리나 딸 혹은 아내 등 가족이 주된 서술자이자 초점자로 기능하는 고유한 서술방식을 보인다. 치매에 걸린 인물이 기억력의 퇴화와 인지기능의 상실로 인해 서술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매를 관찰하는 초점자나 기록하는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는 내용은 치매에 걸린 인물의 증상과 그에 따른 돌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환자를 돌보면서 변해가는 인물의 내면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환자의 삶의 역사가 구성된다. 〈해산바가지〉의 경우 서술자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증오와 고통이 보람으로 승화되는 경험을 서술한다. 그녀에 의해서 시어머니의 서사는 '저절로 인간의 생명

www.kci.go.kr

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노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치매노인을 돌보는 인물은 기억을 상실해가는 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고착되는 '기억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알 수 없는 세계는 치매 노인을 돌보던 인물을 반성과 성찰에 이르게 하면서 기억의 병이 지닌 망각의 역설을 보여준다. 『당신』에서 치매는 남편 주호백이 억압했던 지난 시절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면서 서술자인 아내를 새로운 각성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김경욱의 〈천국의 문〉은 고령화 현상과 가족의 해체 속에서 고립된 개호의 양상을 재현하면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한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다양한 문제를 응축하는 핵심적인 주제이자 제재이다. 치매에 걸린 인물과 그들을 돌보는 인물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사건, 그리고 돌봄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서사적 의미를 그린 이러한 작품들은 앞으로 가속화될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간병)소설이라는 장르로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경욱, 「천국의 문」, 『제4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16.

김원일, 「나는 누구냐-치매에 관한 보고서」,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2001.

박범신, 『당신-꽃잎보다 붉던』, 문학동네, 2015.

박민규, 「낮잠」, 『제3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2008.

박완서,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_____, 「포말의 집」,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_____, 「해산바가지」,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_____, 「환각의 나비」,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_____, 「후남아 밥 먹어라」,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6.

이승우, 「검은 나무」, 『검은 나무』, 민음사, 2005.

2. 논문과 단행본

김미영, 「소설에서의 치매 서사의 수용」,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231-255쪽.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303-327쪽.

_____,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313-340쪽.

_____,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293-332쪽.

김진국, 『기억의 병－사회문화 현상으로 본 치매』, 2016, 시간여행,

송명희 외,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 사상, 2012.

성미라 외, 「재가 치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극복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3호, 한국간호과학회, 2013, 389-398쪽.

양현덕 · 양인덕, 『치매(인지증)이야기-역사와 현실』, 브레인와이즈, 2016.

왕 철, 「실비아 플라스의 끝나지 않는 애도-「아빠」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36권 4호, 영어영문학회, 2010, 93-109쪽.

유 준, 「「천국의 문」과 김경욱의 작품세계」, 『제4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 2016.

윤설영, 「무섭고도 슬픈 노인의 죽음, 노노개호(老老介護)의 끝」, 『중앙일보』

www.kci.go.kr

2017.10.1.
이봉숙・김춘미・이명선,「여성가족 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 여성주의적 접근」,『대한간호학회지』제34권 제5호, 한국간호과학회, 2004, 881-890쪽.
이진우 외,『호모 메모리스』, 책세상, 2014.
이현주・이주원・이준영,「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사회과학연구』26(1),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15, 345-367쪽.
장혜영・이명선,「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한국간호과학회지』47(3), 한국간호과학회, 2017, 367-379쪽.
정연욱,「개호소설『恍惚の人』를 통해 본 근대개호의 오류」,『일본어문학』54, 한국일본어문학회, 2012, 307-322쪽.
_____,「일본 '개호(介護)소설' 구조연구」,『日本語文學』제7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6, 253-273쪽.
천선영,「노망과 치매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 형성/확산 과정의 사회적 함의」,『2011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한국사회학회, 2001, 507-531쪽.
최종렬,「한국 현대 노년 소설연구사」,『한국문학논총』50집, 한국문학회, 2008, 501-536쪽.
카토 신지,『치매와 마주하기』, 박규상 역,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2007.
고바야시 토시코・후쿠나가 토모코,『치매노인의 심리증상과 케어』, 황재영 역, 노인연구정보센터, 2011.
야마무라 모토키,『나홀로 부모를 떠안다』, 이소담 역, 코난북스, 2014.
이반 안토니오 이스쿠이에르두,『망각의 기술』, 김영선 역, 심심, 2017.

www.kci.go.kr

Abstract

The Literature in the Aging Society
—Focused on Novels about Dementia

Eom, Mi-Ok(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veal in dementia novels by analyzing the novels on dementia that have been published between the 1970s until toda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explain how the perception of dementia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what significance the narrative of Alzheimer's conveys in novels,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for the literature of the aging era.

In the past, the obliteration of memory, formerly called 'senility', was a subject of sociocultural care. However, the name has been changed to 'Alzheimer's disease' starting from the 1990s and is now considered to be a disease that must be treated medically. This change in perception is represented in novels: In Park Wanseo's novel, the terms 'senility' and 'dotage', the way a daughter-in-law called her mother-in-law, demonstrated the perceptions of that time; and in Park Bumshin's *You*, the recognition was changed and it came to be considered as a disease that could be prevented to some extent and needed to be actively treated.

The literary works on dementia have a unique narrative style in which the daughter-in-law, daughter, or wife who takes care of a patient with dementia serves as the main narrator and focal point. This is because the person with dementia cannot be the subject of a narrative due to memory atrophy and a loss of cognitive function. The events described by the protagonist who observes the disease or the records taken by the narrator consist of a description of the patient's symptoms, the pain and conflict the caretaker suffers, and the inner perspective of the person that changes while she cares for the patient. In this narrative, the history of the patient's life is composed.

Meanwhile, the person taking care of the elderly with senile dementia realizes in the process of caring that there remains an 'island of memory' attached to the happiest moment of the patient's life. The anchored world leads the caregiver to

www.kci.go.kr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which demonstrates the paradox of the obliteration that a memory illness possesses. On the other hand, Kim Kyungwook stressed in his novel *The Gate* of Heaven that the caring issue in the age of family dissolution and aging is no longer a private matter but a subject that needs social and institutional intervention. This literature of dementia, where the multifaceted aspect of the life of the elderly and social phenomena are condensed, proposes a new literary potential as a genre of care (nursing) novel in the increasingly aging society.

(Keywords: senility, dementia, care, the elderly, aging era, obliteration, reflection, care (nursing) novel)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6일
수정완료일 : 2018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12일

www.kci.go.kr